



# HEALTH PROMOTION RESEARCH BRIEF



## 건강증진 리서치 브리프



## INTRODUCTION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에 따라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낮은 상황이다. 간접흡연이 직접흡연과 마찬가지로 세포의 정상 기능을 손상시켜 폐암이나 다른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는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담배를 피우는 이른바 3차 흡연을 하더라도, 담배의 독성물질이 공기나 가구, 벽에 스며들어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 2014 VOL.4

기획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연구평가팀  
발행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2014)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 10개월 간 국민신문고에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총 1,02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96.7%)가 대부분이었고,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3.3%)의 순이었다.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흡연장소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53.7%)가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31.9%), 건물 밖의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12.6%)의 순이었다.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법제화 해달라는 요청이 절반 이상(58.3%)이었고, 흡연의 단속·계도 요구와 고충 호소(37.1%)도 많았다.

이같은 민원을 반영하듯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호는 간접흡연을 주제로 실내 간접흡연 노출실태와 청소년 간접흡연 노출실태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간접흡연 규제 사례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소개하고자 한다.



150-86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4, 4-5층  
Tel. 02-3781-3500 Fax. 02-3781-3583 www.khealth.or.kr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HP

RESEARCH



# 1. 실내 간접흡연 노출 실태 측정을 통한 국가 간접흡연 규제정책의 효과평가

연구책임자 : 김규상(서울의료원)

## ▣ 연구기간

2013년 2월 25일 ~ 12월 13일

##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실내 금연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내공기 질과 건강영향 조사를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 금연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 연구방법

- 실내흡연규제정책의 개선점과 대안 모색을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 논의를 실시하였다.
- 음식점 등 실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실태 및 노출을 평가를 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및 종사자들의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 ▣ 연구결과

- 간접흡연 법 규제 고찰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 국내 실내 흡연규제 이행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 담배가격의 인상, 금연서비스의 보험급여화와 다각화, 장기적으로 계획된 금연홍보, 금연콜센터의 지속적 운영, 학교흡연 예방사업과 함께 실내 흡연규제를 확대하고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
  - ‘단순’, ‘명확’, ‘비자율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 음식점 등 실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실태 및 노출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실내 PM2.5<sup>1)</sup> 농도는 숯불을 이용하는 곳을 제외한 한식집에서 정책전후 차이가 없는 반면, 150㎡ 이상 호프집에서는 감소하였다.
  - 흡연실 유무에 따른 PM2.5 농도는 흡연실이 있는 호프집이 그렇지 않은 호프집 보다 높았다.
  - 지난 4주 동안 동안 눈, 코, 목의 자극증상은 정책 후 150㎡ 이상 음식점에서 감소하였다.
  - 종사자의 소변 중 코티닌<sup>2)</sup> 농도는 정책 시행 후 차이가 없었지만 소변 중 NNAL<sup>3)</sup> 농도는 150㎡ 이상 호프집에서 감소하였다.
  - 실내 전면금연정책의 효과를 음식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과 건강영향 측면에서 평가하였고 그 결과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
- 음식점 노출평가에 기반하여 금연구역확대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 담배규제정책 입안자들은 FCTC가 권고하는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담배회사 활동에 대한 대응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 담배규제정책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법 시행 초기에는 법 집행의 주체에 대한 명확화와 엄격한 시행이 요청된다.
  -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문제는 합의를 필요하다.
  - 18세 이하의 청소년, 어린이가 탑승한 자동차는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 대중들이 이용하는 건물 출입문 주위의 흡연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지역구나 자치구에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예외 없는 전면적 실내금연이 요청된다.
  - 실내 전면 금연정책의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 PM2.5(particulate matter, 지름 2.5μm이하의 초미세먼지)

2) 코티닌 (cotinine, 니코틴의 대사산물)

3) NNAL(4-[methylnitrosamino]-1-[3-pyridyl]-1-buranol, 니코틴유대니트로사민의 대사물질:발암물질)



HP

RESEARCH



## 2.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 간접흡연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박선희(경희대학교)

### ▣ 연구기간

2013년 5월 28일 ~ 11월 27일

###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 간접흡연 노출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 연구내용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간접흡연 실태 및 간접흡연 관련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2012년 제8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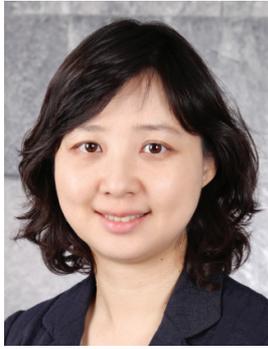
### ▣ 연구결과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간접흡연 실태 및 간접흡연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간접흡연 노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외 문헌에서는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 부모의 적은 수입, 육체노동자인 부모, 작은 집의 크기, 거주밀도가 높은 집, 집이 없는 가구, 낮은 가구용요도, 낮은 국가 경제지표, 빈곤지역 거주 및 학교의 빈곤 수준 등이 청소년 간접흡연 노출 위험성 증가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간접흡연은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정 내 특성, 학교 및 친구 특성, 국가 금연 정책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간접흡연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실무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세계보건기구, 미국, 호주, 캐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청소년기 간접흡연 노출 감소를 위해 가정과 차 안에서의 흡연 감소 정책, 공공주택의 흡연 규제 정책, 학교에서의 금연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및 정책의 제정, 금연구역 지정, 학교와 가정에서의 예방프로그램,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책 및 실무지침은 간접흡연 노출 관리보다는 금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기 간접흡연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및 실무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청소년 표본을 이용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간접흡연 노출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흡연경험 청소년,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의 3개 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영향요인인 성별, 학교급, 부모와 동거여부, 도시규모, 흡연행태, 주관적 건강수준, 스트레스의 효과를 통제한 후 사회경제적 지위와 간접흡연 노출 위험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3개 모두의 표본에서 부모의 학력과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구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대상자의 간접흡연 노출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기 간접흡연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간접흡연에 관한 정보수집 대상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금연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가정과 차 안에서의 금연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청소년기 간접흡연 노출 실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청소년기 간접흡연 노출 수준의 심각성, 간접흡연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인구집단에서 간접흡연 노출 위험성이 높음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 학교에서 청소년 간접흡연 노출 감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
  - 금연정책 강화를 통하여 국민의 흡연율 감소 유도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금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 담배 세금의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EXPERT

COLUMN



## 누구나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김희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몇 년 전 캘리포니아의 모 대학에서 우리 국민건강증진연구소로 교환학생이 방문한 적이 있다. 이 학생은 졸업 프로젝트로 서울의 나이트클럽과 바 종사자의 간접흡연 노출을 조사하여 자신이 사는 지역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덕분에 우리 연구소 학생들도 팀을 짜서 교환학생과 함께 신촌과 홍대의 술집을 누비고 다녔고, 하루는 학생들과 함께 신사동의 유명한 대형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다.

나이트클럽은 이른 오후시간이라 아직 손님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미 음악이 쿵쿵 울리고 있었고, 우리는 미로 같은 뒷길을 구불구불 돌아들어가 나이트클럽 직원들에게 면담 신청을 하였다.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부탁한 후, 머리카락 샘플도 요청하였다. 소개를 받아 방문하기는 했지만, 영화에서만 보던 업종에 계신 분들이라 보니 머리카락을 잘라가겠다는 부탁에 무섭게 화를 내는 건 아닐까 심장이 떨리기도 했으나, 직원들은 의외로 친절하게 참여해 주었다. 다부진 체격의 매니저로부터 “나도 이제 나이도 들었고 가족도 생각해야 하고, 건강이 가장 큰 관심사지요. 평소에도 손님들이 피는 담배연기를 맡는 것이 째짤했는데 매장에서 흡연이 금지되면 건강을 위해 좋을 것 같아요. 직원 중에서도 담배를 끊었거나 금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라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어떤 업종에 종사하든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방문이었다.

외국 사례에서 음식점과 술집을 금연구역으로 선정한 과정을 보면, 손님의 건강보다도 종사자의 간접흡연 노출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접할 수 있다. 직원은 가게가 일터로서 주요 생활터이고,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계속해서 간접흡연에 노출된다면 그 피해는 매우 크므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헤더 크로우(Heather Crowe)는 캐나다의 웨이트리쓰였다. 그녀는 비흡연자였으나, 40년 간 음식점에서 근무 후 2002년 폐암에 걸리게 되자, 일하던 음식점 측에 직업성 질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 급료,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받았다. 또한 그녀는 음식점 금연구역 설정을 지지하는 공익 캠페인에 직접 등장하여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온타리오 주는 2006년 그녀가 폐암으로 사망한지 며칠 후, 보다 강력한 담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실내 간접흡연 노출 실태 측정을 통한 국가 간접흡연 규제 정책의 효과 평가〉 결과, 정책 시행 대상인 150㎡ 이상 호프집에서만 실내 PM2.5 농도가 감소하고, 눈, 코, 목의 자극증상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면실내금연 정책으로 음식점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음을 실제로 입증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흡연실이 있는 호프집에서는 PM2.5 농도가 높았다는 결과는, 흡연실이라는 뱀 발(蛇足)을 과감히 잘라버려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 간접흡연 실태 및 개선 방안〉에서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 분석 결과 부모의 학력과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구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대상자의 간접흡연 노출 위험성이 높았던 결과는, 학생들이 삶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환경의 영향으로 간접흡연 노출 위험이 달라진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해서는 문제 파악을 위한 자료 자체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누구나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이, 환경,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